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인지치료에서 도식이 차지하는 이론적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문제에 기여하는 부적응적 도식의 유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도식-중심 치료 이론(Young, 1990)에서 제안된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chema Questionnaire(Young, 1990; 1991 개정)를 기초로 한국판 도식질문지를 제작하고, 이를 833명의 대학생 피험자에게 실시하였다. 한국판 도식질문지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6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는데, Young의 이론에서 제안되었던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 중 15개가 이 요인들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간의 상관 자료를 기초로 상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약한 자기(vulnerable self)와 팽창된 자기(inflated self)의 두 개의 상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Young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지지를 제공하며, 특히 정신병리를 유발하는 마음의 기본 바탕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없는 보편적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심리치료의 목표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 증상의 제거 또는 완화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심리적 증상을 초래케 하는 기저의 원인에 대한 근원적 수정과 변화야말로 심리치료가 지향하는 보다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현대 심리치료 이론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은 출범 초기부터 이를 분명히 하여왔다. 예를 들어, Freud는 'Studies on Hysteria'(Breuer & Freud, 1893-1895)에서 "원인이 멈추면 결과도 멈춘다"¹⁾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p. 7), 표면 증상

1) "cessante causa cessat effectus"(when the cause ceases the effect ceases).

에 기저하는 근원적 원인(즉, 무의식적 갈등)의 변화가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 목표임을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인지치료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A. Beck(1976)에 의하면, 치료의 초점은 환자의 증상을 초래케 한 기저 신념(underlying belief)을 변화시키는 데 두어져야 하며, 이런 기저 신념을 확인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증상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J. Beck(1995)은 개인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수준의 신념, 즉 핵심 신념(core belief)의 수정이야말로 인지치료의 궁극적 목표이자 최종 목적지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정신분석이나 인지치료 이론은 모두 - 비록 기저 원인의 내용이나 성질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 증상을 초래케 하는 마음의 기본 바탕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뿌리 혹은 바탕 치료의 면모를 지니는 셈이다(Beck & Freeman, 1990).

기저의 원인에 대한 인지치료의 이 같은 관심은 인지치료가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 이론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게 되었다. 성격장애는 말 그대로 성격에서의 장애이며, 성격은 각 개인의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이자 바탕이다. 따라서 성격장애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애적 성질을 지니는 마음의 바탕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인지치료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도식이므로(Beck & Freeman, 1990), 부적응을 유발하는 병인적 도식(pathogenic schema)의 유형과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바탕 치료로서의 인지치료 이론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Young(1990)은 '도식-중심 치

료'(schema-focused therapy)라는 새로운 인지치료 이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이론은 심리적 장애, 특히 성격장애에 기저하는 부적응 도식들을 확인하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도식-중심 치료는 첫째, 부적응적 성질을 지니는 도식들이 어떻게 발달되고 유지되는지, 둘째, 부적응 도식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들은 어떠한지, 셋째 구체적인 부적응 도식들의 유형과 내용, 그리고 부적응 도식들간의 위계적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치료 실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를 도식의 관점에서 공식화해나가는 방법과 도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 전략과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도식의 변화와 수정에 초점을 둔 인지 치료는 Young(1990)의 이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Beck(1967)이나 Segal(1988)의 인지 치료 이론 역시 개인의 자기-개념의 중추를 구성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신 구조로서의 도식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식으로 인해 자기와 환경에 관한 정보의 처리 과정이 왜곡되며, 이러한 왜곡은 다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주관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Young(1990)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이론적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도식이 활성화되는 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Young의 도식은 무조건적(unconditional)인데 반해(예: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Beck의 도식은 조건적(conditional)이다(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 결과로 Young의 도식은 일상 생활에서 특별한 스트레스가 경험되지 않더라도 만성적인 부정적 생각과 주관적 고통을 초

래할 수 있는 반면, Beck의 도식은 특정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에만 활성화되어진다. 도식의 성질에 대한 이 같은 차이점과는 별도로, 아마도 도식-중심 치료 이론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다양한 부적응 도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명세화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도식-중심 치료 이론에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도식은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라 불리는데(Young, 1990), 이는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기능하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Young(1991)은 많은 치료 경험을 통해 만성화되거나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Emotional Deprivation, Social Isolation, Abandonment, Mistrust/Abuse, Failure to Achieve, Defectiveness/Shame, Vulnerability, Enmeshment, Subjugation, Dependence/Incompetence, Self-Sacrifice, Social Undesirability, Emotional Inhibition, Unrelenting Standards, Entitlement, 및 Insufficient Self-Control.

Young은 위에서 제시된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식 질문지(Schema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Young, 1990; 1991 개정). 이 질문지는 각각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총 205개의 문항을 통해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식 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평가하여 보고한 연구로는 Schmidt, Joiner, Young, 및 Telch(1995)와 Lee, Taylor, 및 Dunn(1999)의 연구 등 두 개가 있다.

Schmidt 등(1995)은 각기 1,129명의 대학생과 187명의 정신과 외래 환자들에게 도식 질문지를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도식 질문지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에서는 Young(1990)이 제시하였던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 중 12개와 Young의 이론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Fear of Losing Control 요인 등 13개의 요인들이 확인되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에서는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 중 15개가 확인되었다. 이 두 집단 모두에서 Social Undesirability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학생 집단에서 확인되었던 Fear of Losing Control 요인은 환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Lee 등(1999)은 호주에 거주하는 433명의 정신과 외래 및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식 질문지를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요인들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14개 요인들은 Young이 이론적으로 제안했던 초기 부적응 도식들과 그대로 일치했으며, Schmidt 등(1995)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었던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Young이 제안했던 Social Undesirability 요인은 Schmidt 등(1995)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Young의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Emotional Inhibition 요인은 Emotional Constriction 요인과 Fear of Losing Control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Lee 등(1999)의 연구에서는 Young이 제시했던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 중 15개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두 연구의 결과는 Young(1990)의 도식-중심적 치료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초기 부적응 도식들에 관한 경험적 지지를 제공한다. 즉,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마음의 기본 바탕으로 서로 다른 내용들로 변별가능한 병인적 도식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각기 다른 내용의 병인적 도식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 이론이나 경험적 측정 도구가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Young의 이론에서 제안되었던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경험적 확인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및 실제적 시사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Young(1990)이 제안했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Lee 등(1999)은 미국의 대학생 및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Schmidt 등(1995)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에 거주하는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신들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초기 부적응 도식의 문화적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 문화나 호주 문화는 모두 영어 문화권에 속하며, 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일종의 유사 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문화권에 걸쳐서 초기 부적응 도식들이 거의 유사하게 확인되었다고 해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문화적 보편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초기 부적응 도식의 문화적 보편성 여부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검증은 영어 문화권과는 다른 문화권, 예를 들어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이 제안했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이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피험자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분석에 포함된 피험자들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 833명(남 304명, 여 529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09세(표준편차 2.75), 범위는 18~45세였다.

2. 도구

한국판 도식질문지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0; 1991 개정)이 개발한 205문항짜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번안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본 연구자와 한 명의 임상심리학자가 공동으로 일차 번안을 하였다. 이렇게 번안된 질문지를 미국에서 15년 가량 거주한 재미교포로 하여금 역번역 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이차 번안을 하였다. 원 문항과 이차 번안된 문항을 한국어와 영어의 동시통역 공인자격 증 소지자에게 제시하여 문항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다. 그에 따라 일부 문항 내용을 다시 손질하여 한국판 도식질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한국판 도식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전적으로 그렇다) 상에서 행해지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의해 측정되는 도식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점수의 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들 모두의 전반적 수준을 알

아보기 위해서는 각 문항 점수를 전부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면 된다. 이와는 달리,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각 유형별 점수를 따로 계산할 수도 있다. 즉, 각 개인이 특정한 유형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함유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도식에 소속된 문항들의 점수를 따로 합산하면 된다.

3. 절차 및 분석방법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차 요인분석과 상위 요인분석(higher-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차 요인분석은 우리 나라 대학생들에게 존재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205개 문항들간의 상관 자료를 기초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구해진 요인들을 원 척도의 하위 도식들과 비교하였고, 요인별 신뢰도와 요인간 상관을 구하였다. 또한 일차 요인분석에서 구해진 요인(즉, 초기 부적응 도식)들에 기저하는 상위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차 요인분석에서 구해진 요인들간의 상관 자료를 기초로 상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차 요인분석

한국판 도식질문지는 주성분 분석(PCA)에 의한 요인추출과 varimax에 의한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되었다. 요인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scree 검사 결과와 요인의 해석가

능성을 검토한 결과, 16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16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4.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소속 문항의 결정에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문항들을 선정한다는 것과 특정 문항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는 요인들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요인에 귀속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6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은 전체 205문항 중 173문항이었으며, 나머지 32문항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16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과 원 척도의 각 하위 도식에 소속된 문항들을 비교한 결과와 요인별 설명 변량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을 토대로 각 요인의 문항구성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요인 1에는 성취에 대한 실패를 측정하는 9개 문항 전부와 의존과 무능력을 측정하는 15개 문항 중 주로 무능력을 측정하는 7개 문항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측정하는 2개 문항,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함을 측정하는 2개 문항 등이 소속되었다. 이에 따라 요인 1은 '실패/무능'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주로 정서적 지지원의 결핍과 관련된 정서적 박탈(emotional deprivation)을 측정하는 9개 문항 전부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10개 문항 중 2개 문항, 그리고 정서적 유기(emotional abandonment)를 측정하는 18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포함되어 '정서지지 결여'로 명명되었다. 요인 3에는 절대적 기준이나 완벽에 대한 추구를 측정하는 16개 문항 중 14개가 포함되어 '절대기준/완벽'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4에는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들과의 심리적 비분리 혹은

표 1. 한국판 도식질문지와 원 척도의 요인(도식)별 문항 비교 및 요인별 설명 변량

요인 명칭	원 척도 도식 ¹⁾ (문항소속비) ²⁾	소속문항	설명변량 (%)
1. 실패/무능	FA (9/9)	79, 80, 81, 82, 83, 84, 85, 86, 87	24.76
	DI (7/15)	94, 95, 96, 98, 99, 101, 102	
	SU (2/9)	75, 77	
	DS (1/15)	58	
	SB (2/10)	129, 132	
	VH (2/14)	103, 104	
	SS (1/17)	146	
2. 정서지지 결여	ED (9/9)	1, 2, 3, 4, 5, 6, 7, 8, 9	6.01
	SI (2/10)	51, 52	
	AB (4/18)	13, 14, 21, 22	
3. 절대기준/완벽	US (11/16)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7, 178, 179	3.61
	ET (3/11)	180, 181, 189	
4. 비분리	EM (11/11)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3.21
	SB (1/10)	133	
5. 예속/굴종	SB (7/10)	128, 130, 131, 134, 135, 136, 137	2.29
	SS (4/17)	138, 139, 153, 154	
	DS (1/15)	64	
6. 불신	MA (10/17)	29, 33, 34, 35, 36, 37, 39, 40, 41, 43	2.09
	AB (2/18)	20, 24	
	VH (1/14)	116	
7. 내성취약	IS (12/15)	191, 192, 194, 195,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5	1.94
8. 배려/희생	SS (12/17)	140, 141, 142, 143, 144, 145, 147, 148, 149, 150, 151, 152	1.52
9. 결합	DS (11/15)	55, 56, 57, 59, 60, 61, 62, 63, 67, 68, 69	1.42
	AB (1/18)	27	
10. 고립/단절	SI (8/10)	45, 46, 47, 48, 49, 50, 53, 54	1.28
	AB (1/18)	16	
11. 의존	DI (7/15)	88, 89, 90, 91, 92, 93, 97	1.19
12. 상실우려	AB (9/18)	11, 12, 15, 17, 18, 19, 23, 25, 26	1.10
13. 파국	VH (5/14)	106, 110, 113, 114, 115	1.07
	AB (1/18)	10	
14. 충동/분노	EI (4/9)	155, 156, 157, 158	.98
	IS (2/15)	193, 196	
15. 자기우월	ET (6/11)	182, 183, 184, 185, 186, 190	.94
16. 몰락	VH (4/14)	105, 107, 108, 109	.92

1) 원 척도에 속한 16개 하위 도식의 명칭은 다음과 같음:

- AB: Abandonment; DI: Functional Dependence/Incompetence; DS: Defectiveness/Shame;
- ED: Emotional Deprivation; EI: Emotional Inhibition; EM: Enmeshment; ET: Entitlement;
- FA: Failure to Achieve; IS: Insufficient Self-Control/Self-Discipline; MA: Mistrust/Abuse;
- SB: Subjugation; SI: Social Isolation; SS: Self-Sacrifice; SU: Social Undesirability;
- US: Unrelenting Standards; VH: Vulnerability to Harm and Illness

2) 원 척도의 각 도식에 소속된 문항들 중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특정 요인에 소속된 문항 수의 비율

융해(fusion)를 측정하는 16개 문항 중 11개가 소속되어 '비분리'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요인 5에는 타인에 대한 예속과 복종을 측정하는 10개 문항 중 7개 문항이 포함되어 주를 이뤘으며, 그 외에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과 관련된 4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예속/굴종'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요인 6에는 자신을 이용하는 타인들에 대한 불신을 측정하는 17개 문항들 중 10개가 포함되어 주를 이루었으며, '불신'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7은 사소한 스트레스나 불편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 또는 포기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 15개 중 12개가 포함되어 '내성취약'의 이름이 붙여졌다.

요인 8에는 타인을 위해 부가적인 짐이나 부담을 떠안거나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을 측정하는 17개 문항 중 12개가 포함되어 '배려/희생'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9에는 내면적인 결함이나 결점을 측정하는 15개 문항들 중 11개가 소속되어 '결함'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10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음을 측정하는 10개 문항들 중 8개를 포함하여 '고립/단절'의 이름이 붙여졌다.

요인 11은 의존과 무능력을 측정하는 15개 문항 중 주로 의존을 측정하는 7개 문항을 포함하여 '의존'으로 명명되었으며, 요인 12에는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을 떠나거나 그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측정하는 18개 문항 중 9개가 소속되어 '상실우려'의 이름이 붙여졌다. 요인 13에는 위해나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측정하는 14개 문항 중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타인으로부터 해침을 당함으로써 초래되는 위험이나 파국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이 포함되어 '파국'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14는 충동이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으

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측정하는 9개 문항 중 4개와 충동이나 분노에 대한 정서통제의 결함을 측정하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충동/분노'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요인 15는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적 구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측정하는 11개 문항 중 6개를 포함하여 '자기우월'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16에는 위해나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측정하는 14개 문항들 중 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측정하는 4개 문항이 포함되어 '몰락'으로 명명되었다.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16개 요인들에 속하는 문항들 중 대표적인 문항들을 2개씩 뽑아 표 2에 제시하였다.

16개 요인의 요인별 문항 수, 요인 점수, 문항-요인 상관, 그리고 요인 부하량 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의 수는 4~24개(평균 10.8개)였으며, 각 요인에 소속된 개별 문항과 요인 점수간의 상관을 평균한 값은 .63~.79(평균 .70), 그리고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해당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을 평균한 값은 .50~.66(평균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16개 요인들간의 상관과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대부분의 요인들이 서로 중간 크기 이상의 상관을 유지한 반면,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및 자기우월의 세 요인들은, 몇몇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요인들과 대부분 .20 이하의 작은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이 세 요인들에 반영된 도식 내용은 다른 요인들에 담겨진 도식 내용과는 성질 면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6개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는 .75~.95(평균 .88)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별 대표 문항들

요인명칭	대 표 문 항
1. 실패/무능	81. 일어나 성취 면에서 나는 남들에 비해 능력이 뒤쳐진다. 82. 나는 실패자이다.
2. 정서지지 결여	1. 이제까지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이 없었다. 2. 이제껏 애정과 관심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3. 절대기준/완벽	165. 나는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179. 나는 업적 면에서 항상 첫째가 되어야 한다.
4. 비분리	117. 내 또래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있지가 못하다. 118. 부모와 나는 각자의 생활과 문제들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5. 예측/굴종	131.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134.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비위를 맞춰주는 데 신경을 많이 쓴다.
6. 불신	33.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 41. '조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7. 내성취약	195. 먼 훗날의 목표를 위해 눈앞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참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199. 일이 어려워지면, 끈기있게 참으면서 끝까지 완수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 배려/희생	141.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 내가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152.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쥐도 결코 충분히 준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다.
9. 결합	56.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다. 57. 나에겐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타고난 결합과 결점이 있다.
10. 고립/단절	48.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50. 나는 무리에 끼지 못하고 항상 바깥에서 맴돈다는 느낌이 든다.
11. 의존	89.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90. 혼자서는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12. 상실우려	11.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17. 내가 관심을 쏟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간다는 느낌이 들면 절망스럽다.
13. 파국	113. 나는 종종 정신이 이상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들곤 한다. 115. 의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이곤 한다.
14. 충동/분노	157.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196. 일단 화가 나기 시작하면 도저히 통제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5. 자기우월	182.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나 가해지는 제한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185.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16. 몰락	105. 내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된다. 109. 가진 돈을 다 날리고 알거지 신세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된다.

표 3.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별 문항수, 평균(SD), 문항-요인 상관, 및 요인 부하량

요인명칭	문항수	평균(SD)	평균상관 ¹⁾	평균부하량 ²⁾
1. 실패/무능	24	46.15(15.47)	.68	.57
2. 정서지지 결여	15	27.26(10.03)	.71	.58
3. 절대기준/완벽	14	43.48(12.47)	.70	.66
4. 비분리	12	24.16(8.35)	.69	.61
5. 예측/갈증	12	31.11(8.71)	.69	.54
6. 불신	13	31.98(8.97)	.65	.50
7. 내성취약	12	32.26(8.30)	.66	.58
8. 배려/희생	12	34.59(8.91)	.66	.62
9. 결합	12	22.29(8.61)	.73	.52
10. 고립/단절	9	18.15(7.41)	.71	.54
11. 의존	7	16.26(5.47)	.79	.61
12. 상실우려	9	20.01(6.59)	.63	.53
13. 파국	6	10.75(4.25)	.74	.52
14. 충동/분노	6	15.73(4.93)	.71	.53
15. 자기우월	6	15.86(4.75)	.71	.57
16. 몰락	4	9.23(3.49)	.76	.54
평 균	10.8		.70	.56

- 1) 특정 요인에 소속된 문항 점수와 요인 점수간의 상관을 각 문항들에 걸쳐 평균한 값임.
 2) 특정 요인에 소속된 각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을 평균한 값임.

표 4.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간 상관 및 내적 합치도

	실패 무능	지지 결여	절대 기준	비 분리	예측 갈증	불신	내성 취약	배려 희생	결합	고립 단절	의존	상실 우려	파국	충동 분노	자기 우월	몰락
실패무능	.95 ^{b)}															
지지결여	.66	.93														
절대기준	.04	.08	.92													
비분리	.55	.37	.19	.90												
예측갈증	.63	.48	.19	.48	.90											
불신	.50	.59	.36	.41	.49	.88										
내성취약	.52	.40	.14	.38	.42	.36	.88									
배려희생	.10	.07	.33	.16	.39	.15	.09	.88								
결합	.73	.67	.12	.44	.52	.53	.41	.11	.92							
고립단절	.70	.76	.16	.37	.53	.61	.42	.08	.70	.92						
의존	.71	.44	.05	.54	.53	.43	.53	.06	.51	.49	.90					
상실우려	.62	.61	.17	.48	.55	.59	.43	.19	.60	.62	.56	.87				
파국	.60	.55	.16	.51	.46	.52	.40	.19	.59	.59	.44	.60	.83			
충동분노	.46	.41	.36	.40	.47	.49	.51	.34	.47	.47	.37	.47	.50	.80		
자기우월	.08	.20	.55	.11	.05	.32	.33	.13	.15	.23	.08	.15	.21	.34	.81	
몰락	.55	.46	.23	.39	.47	.55	.35	.22	.50	.48	.41	.52	.59	.43	.20	.75

1) 대각선상에 표기된 수치는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임.

표 5. 한국판 도식질문지에서 탈락한 원 척도의 도식별 잔여 문항들

도식 명칭 ¹⁾	소속문항	문항 탈락비 ²⁾
DI	100	1/15
DS	65, 66	2/15
EI	159, 160, 161, 162, 163	5/9
ET	187, 188	2/11
IS	204	1/15
MA	28, 30, 31, 32, 38, 42, 44	7/17
SU	70, 71, 72, 73, 74, 76, 78	7/9
US	172, 173, 174, 175, 176	5/16
VH	111, 112	2/14

1) 도식 명칭은 표 1 참조

2) 원 척도의 각 하위 도식에 소속된 문항들 중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어느 요인에도 소속되지 않은 문항 수의 비율

표 5에서 보듯이, 원 척도의 205개 문항들 중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16개 요인들에 소속되지 않은 문항들은 모두 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Functional Dependence and Incompetence, Vulnerability to Harm and Illness, Defectiveness/Shame, Insufficient Self-Control/Self-Discipline, Entitlement 도식 등은 각기 1~2개의 문항들만이 탈락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Unrelenting Standards와 Emotional Inhibition 도식의 경우는 각기 5개 문항, Mistrust/Abuse 도식의 경우는 7개 문항 등 다소 많은 문항들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식의 핵심 내용은 각기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충동/분노, 절대기준/완벽, 및 불신 요인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Functional Dependence/Incompetence 도식의 문항들은 문항 내용에 따라 각기 의존 요인과 실패/무능 요인으로 이분되었으며, Vulnerability to Harm and Illness 도식의 문항들은 파국 요인과 몰락 요인으로 이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ial

Undesirability 도식의 경우는 전체 9개 문항 중 7개 문항이 탈락하여 한국판 도식질문지에서 독자적인 요인으로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척도의 16개 하위 도식과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16개 요인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 상위 요인분석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일차 요인분석에서 나온 16개의 요인들간의 상관을 기초로 주성분 분석(PCA)에 의한 요인추출과 varimax에 의한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 요인분석(higher-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상위요인의 수는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상위요인들에 대한 scree 검사 결과와 추출된 상위요인들에 대한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2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두 개의 상위요인은 전체 변량의



그림 1. 원 척도의 16개 도식과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16개 요인간의 관계

57.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max 방법에 의해 직교회전 시킨 결과 구해진 상위요인별 요인부하량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상위요인 1은 실패/무능, 고립/단절, 결함, 정서지지 결여, 상실우려, 의존, 파국, 불신, 예속/굴종, 몰락, 비분리, 내성취약, 및 충동/분노의 1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상위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무능하고, 결함 많고, 실패를 거듭하며, 내성이 부족한 것 등으로 대표되는 내적 자기의 취약성(vulnerability of inner self)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비분리·의존·예속되어 상실을 우려하거나, 타인을 불신하는 자기-타인 관계에서의 취약성(vulnerability of self-other relationship)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파국이나 몰락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충동이나 분노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이 상위요인은 '취약한 자기(vulnerable self)'로 명명될 수 있다.

상위요인 2는 자기우월과 절대기준/완벽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2개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성취 면에서 최고와 완벽을 지향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워 관습과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우월성은 진정한 현실 기반(reality-base)을 가지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자기에 적 집착, 즉 내적 취약성에 대한 신경증적 방어 결과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취나 관계에서의 조그마한 좌절이나 거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항들이 이 상위요인에 포함된 것에서도 시사되어진다. 이런 면에서 이 상위요인은 '팽창된 자기(inflated self)'로 명명될 수 있다.

표 6.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상위요인별 요인 부하량

하위 요인	상위요인1	상위요인2
실패/무능	.886	-.071
고립/단절	.826	.195
결함	.818	.084
정서지지 결여	.808	.150
상실우려	.771	.104
의존	.739	-.095
파국	.722	.168
불신	.662	.410
예속/굴종	.648	-.029
몰락	.625	.200
비분리	.596	.008
내성취약	.582	.253
충동/분노	.517	.420
자기우월	.116	.878
절대기준/완벽	.017	.787
배려/회생	.010	.174
설명변량(%)	46.138	11.031

논 의

한국판 도식질문지에 대해 일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초에 Young(1990)이 제안하였던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 중 12개의 도식들이 원형 그대로 독자적인 요인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Vulnerability 도식은 파국과 몰락 요인으로 양분되었으며, Dependence/Incompetence 도식의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Dependence 문항들은 의존 요인에, Incompetence 문항들은 Failure to Achieve 도식과 합쳐져서 실패/무능 요인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ocial Undesirability 도식은 Schmidt 등(1995)과 Lee 등(199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요인으로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자면, Young(1990)의 16개 초기 부적응 도식들 중 15개 도식들이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16개의 요인들은 각기 4~2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는 평균 .88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각 요인을 별도의 척도로 취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예를 들어, 중요한 타인들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과 관련된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의 상실우려 요인에 포함된 9개 문항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16개의 요인들 중에서 다소 특이한 것은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및 자기우월의 세 요인들이다. 이 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서로간에 중간 크기 이상의 상관관계를 유지한 반면, 이 요인들과 나머지 13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20 이하의 작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세 개의 요인들에 의해 측정되는 도식 내용이 나머지 13개 요인들에 의해 측정되는 도식 내용들과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16개 요인들에 대해 상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상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실패/무능, 고립/단절, 결합, 정서지지 결여, 상실우려, 의존, 파국, 불신, 예측/굴종, 몰락, 비분리, 내성취약, 및 충동/분노 등의 요인들이 함께 묶여 취약한 자기(vulnerable self)라는 상위요인을 구성하였으며, 자기우월과 절대기준/완벽의 요인은 팽창된 자기(inflated self)라는 상위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려/희생 요인은 2개의 상위요인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우월과 절대기준/완벽 요인이 팽창된 자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절대기준/완벽, 자기우월, 및 배려/희생의 세 요인들의 상관 패턴이 나머지 13개 요인들의 상관 패턴과 차이가 났다는 점과 더불어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가능케 한다. 즉, 나머지 13개 요인들이 모두 내적 자기(inner self)나 자기-타인 관계(self-other relationship)에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자기우월과 절대기준/완벽 요인은, 최소한 겉으로 드러나는 바에 있어서는, 결합보다는 우월을, 실패보다는 높은 성취 기준을 내세우고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비록 이러한 지향조차도 내면적 취약성에 대한 자기애적 방어와 산물일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고양된 자신감과 강한 성취 의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인들의 방어유형(defense style)을 분석한 조성호(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들의 방어유형은 크게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으로 대별되었는데, 이 중 적응적 방어유형은 유머, 승화, 전능, 및 부정 등의 4개의 개별 방어기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능 방어기제가 성숙한 방어기제의 대표격인 유머 및 승화 방어기제와 함께 적응적 방어유형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정의상, 전능 방어기제는 마치 자신이 특별한 힘이나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타인 위에 군림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정서적 갈등이나 내적 혹은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전능 방어기제는 자기애적 방어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어기제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Perry, 1990).

그러나 최소한 우리 나라 피험자들에게 있어서 전능과 같은 자기애적 방어는 유머나 승화와 더불어 현실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애적 방어가 다소간 적응적 기능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우월과 절대기준/완벽 요인이 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전능 방어기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두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부적응적이기 보다는 적응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절대기준/완벽과 자기우월의 두 요인이 애초에 Young(1990)이 제안했던 바대로 '진정한' 부적응적 도식인지, 아니면 '위장된' 적응적 도식인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우리 나라 피험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적응적 기능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Young(1990)의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이 우리 나라 피험자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Lee 등(1999)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초기 부적응 도식의 문화적 보편성이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정신병리를 초래하는 마음의 기본 바탕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각각의 개별적인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음으로 인해 마음의 기본 바탕과 그 심리적 결과간의 다양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Young(1990)의 도식-중심 치료에서 강조되었다시피, 성격장애와 같이 마음의 기본 바탕에 있어서의 병리를 반영하는 심리적 문제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들이 지니는 병인적 도식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형을 확인하는 진단적 평가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치료의 진전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라는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임상 집단으로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16개의 요인들이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Schmidt 등(1995)이나 Lee 등(1999)의 연구 결과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는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격장애를 포함한 각각의 진단 범주별로 어떤 유형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이 어떠한 심리적 기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나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조성호(1999).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 2, 115-137.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Guilford

- Press.
- Beck, J. S. (1995). *Cognitive therapy: Basis and beyond*. New York: Guilford Press.
- Breuer, J., & Freud, S. (1893-1895). Studies on hysteria. In J. Strachey(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2). London: Hogarth Press.
- Lee, C. W., Taylor, G., & Dunn, J. (1999). Factor structure of the Schema Questionnaire in a large 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 4, 441-451.
- Perry, M. P. H. (1990). *A manual of Perry's defense mechanism rating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Schmidt, N. B., Joine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3, 295-321.
- Segal, Z. (1988). Appraisal of the self-schema: Construct in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 147-162.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1991).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manuscript.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Schema Questionnaire

Seong-Ho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lthough schemas play a central role in cognitive therapy, research devoted to the systematic assessment of schemas has been scarce.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empirical testing of the sixt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proposed by the theory of schema-focused therapy(Young, 1990). For this, the Korean version of Schem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833 college students. Sixteen factors were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which exactly reflected the fifteen of the sixt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proposed by Young. A higher-order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ixteen factors were reorganized into two higher-order factors - the vulnerable self and the inflated self.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Young's theory of schemas and the universal nature of the pathogenic schemas as underlying causes of psychopatholog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also presented.